

T V

TV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show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멜로 어렵네요”

SBS ‘패션왕’서 주인공 영결 役 유아인

“연기하면서 제일 힘든 건 (영결은)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이 붙어 달려가고는 있지만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영결의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유아인은 20일 가영(신세경), 안나(권유리), 재혁(이제훈)과 ‘사각멜로’를 펼치는 데 있어 캐릭터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유아인은 “장난스럽게 말하면 영결이 제일 사랑하는 건 재혁이다”라며 웃었다.

그는 “영결의 최고 관심사는 재혁이고 불타오르게 하는 것도 재혁이다”라며 “사랑의 관점을 떠나 영결이라는 인물이 가진 욕망의 꼭짓점에 있는 인물이 재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드라마 ‘패션왕’은 분명히 트렌디 드라마다. 출연 배우들의 면면을 보면 이들의 평균 연령이 23세에 불과할뿐더러 가장 주목받는 ‘블루칩’들이다.

그런데 드라마의 분위기는 평범한 로맨틱 코미디와는 달리 어둠이 드리워져 있다. 드라마 ‘패션왕’은 이선미·김기호 작가와 이명우 PD의 합작품이다. 이들은 8년 전 조인

성·소지섭·하지원 주연의 ‘발리에서 생긴 일’에서 의기투합한 바 있다.

“‘발리에서 생긴 일’과 전혀 새롭다고 하긴 힘들겠죠. 그렇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만들고 새로운 세대의 배우들이 출연합니다.”

유아인도 이 점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 시대의 감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혀 다른 드라마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랑이라는 감성·욕망·엇갈리는 마음은 시대 불문하고 공통된 부분이기도 하다”라며 차이점을 강조했다.

신세경과 권유리 두 절세미녀와의 키스신 소감을 묻는 말에 유아인은 잠시 고민하다 신세경을 꼽았다.

“우리는 내가 키스를 했고 신세경은 키스를 당했는데, 장난 반으로 키스를 당하는 게 좋지 않나”라며 “그 장면이 고민을 많이 했던 장면이다. 가영의 마음에서 한 걸음 더 물러서는 영결의 마음이 표현된 것 같아 좋았다”고 답했다.

“영결은 보통의 시청자가 기대하는 판타지에서 벗어난 너무나 현실적인 인물이에요. 저는 신선하고 재미있어요. 신선하고 재미있는 것을 하면서 시청자의 사랑까지 받으려면 훌륭하겠지만, 언제나 그렇듯 신선한 게 100% 편안한 곳에 안착하기란 쉽지 않다고요.”(웃음)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4일(음 윤3월 4일 乙卯)

36년생 절대 오래 지속하지 못하느니라. 48년생 더 높은 차원으로 바라보자. 60년생 분위기 파악을 빨리 해야 한다. 72년생 상황이 급박하니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84년생 상대가 시큰둥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0, 41

37년생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 49년생 겉모습만 보아도 짐작이 갈 것이다. 61년생 책임을 다해야겠다. 73년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85년생 어제와 유사한 상황의 연속임을 감안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72, 81

38년생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승부를 걸어야겠다. 50년생 구태의연함을 벗어버리자. 62년생 기본 전향도 생산적으로 해야 하느니라. 74년생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자연히 따라 오리라. 행운의 숫자 : 65, 24

39년생 선조의 공덕을 기리는 하루가 되리라. 51년생 아름답고 강렬한 것에 흠뻑 취할 수다. 63년생 어제보다는 한걸 나아질 것이니 적극 노력해보라. 75년생 매우 훌륭하다는 평가를 들을 수도 있겠다. 행운의 숫자 : 75, 10

40년생 허물을 남의 탓으로 돌리려 하지 말자. 52년생 큰 일을 해내는 재주를 발휘하리라. 64년생 난관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한 법이다. 76년생 파격적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도다. 행운의 숫자 : 16, 36

41년생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할 필요는 없느니라. 53년생 수직과 수평적인 관계를 모두 아우르자. 65년생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겠다. 77년생 중재인을 통하는 것이 무리가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 27, 66

42년생 상대의 처지를 이해해 주면 좋다. 54년생 성사가 예상되는 순조로운 길조가 비추느니라. 66년생 급하다고 임시변통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78년생 중요한 결과와 연결될 것이니 만전을 기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54, 49

43년생 풍치를 즐기는 여유로움이 있을 지라. 55년생 가까운 이의 마음이 변할 수다. 67년생 가급적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좋으리라. 79년생 부분으로써 전체를 판단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61, 18

44년생 고비를 거의 넘긴 셈이다. 56년생 모방하려고 하지 말고 직접 참관해 보는 것이 좋다. 68년생 상대의 말에 담긴 풍자의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 80년생 음양의 조화가 무르익어 가리라. 행운의 숫자 : 07, 55

45년생 상대가 말뚝을 왜곡 되게 받아 들일 수도 있다. 57년생 습관적으로 되풀이되다가 사고를 야기할 것이다. 69년생 상대의 은근한 미소와 의미를 파악하게 되리라. 81년생 긴장감 풀어도 되겠다. 행운의 숫자 : 86, 71

46년생 조심스럽고 정성스레 다루어야 한다. 58년생 존경하는 이에 대한 소식을 듣겠다. 70년생 작은 일을 놔두면 커지느니라. 82년생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지 말고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함이 좋다. 행운의 숫자 : 77, 91

47년생 상대의 약점을 알게 된다. 59년생 조용한 곳에서 자신을 정리하는 깊은 명상의 시간을 가져 보자. 71년생 사랑스러우면서도 부드럽게 대하라. 83년생 힘만 믿고 덤비다가는 큰일나는 수가 있다. 행운의 숫자 : 82, 9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행영!” ☎010-9790-8237

EBS

Table with columns: 06:00, 10:50, 16:00, 20:30. Rows show EBS program schedule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Table with columns: 00:00, 10:00, 07:00, 15:20. Rows show EBS Plus 1 and Plus 2 program schedules.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I'm on a diet' and '莫逆之友(막역지우)'. Includes Korean text, English translation, and Chinese characters.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회火星去吧 huí huǒxīng qù ba'. Includes Korean text, English translation, and Chinese characters.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うちも生活費かかりすぎて'. Includes Korean text, English translation, and Chinese characters.